

학(學)

특수교육과 교수 이한규

배우는 자세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 공자의 말씀, 공자와 제자의 문답, 제자들 간의 토론 등을 담고 있다. 논어의 맨 첫 권은 학이(學而)편이다. ‘학이시습지불역 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로 시작하므로 첫 두 글자를 따서 학이편이라고 부른다. 논어는 학이편에서 요왈(堯曰)편까지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의해 저술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중복되어 서술된 경우도 많다. 논어의 편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

누가 편찬했든 편찬자는 20편의 배열순서도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이편이 제일 앞에 나왔을까? 중국 고전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짐작해 보면, 학이편 첫머리에 나오는 인상적인 세 구절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 세 구절은 ‘학이시습지불역호’, ‘유붕자원방래불역 낙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인부지이불온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이다.

‘학이...’는 ‘배우고 때로 익히는 일은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의미로 배우는 자세를 말한다. ‘유붕...’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즐거운 일 아닌가?’의 뜻으로 신의로써 사람을 사귀는 자세를 말한다. ‘인부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 아니겠는가?’의 뜻으로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자세를 말한다. 세 구절 모두 살아가는 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공자학과 즉 공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로 삼고자 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세 구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은 부질없지만 배우는 자세가 맨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배우는 자세를 어떤 자세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공자를 따르는 무리들과 가장 성질이 유사한 집단을 오늘의 사회에서 찾는다면 아마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대학교수는 배움을 즐기든 즐기지 못하든 배우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므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 대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배우는 자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는 자세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인가?

배우는 자세의 기본은 개방성과 주체성이다. 개방성이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상태를 말한다.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

하지 못하듯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적 상태는 아집과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찬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겸손하고 호기심이 많다. 내가 아는 바가 별로 없으니, 또는 내가 잘 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무엇이든지 배우겠다는 자세가 개방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은 차를 타고 늘 다니는 길을 갈 때도 창밖을 내다보기 좋아한다. 어른의 눈에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많은 어른들은 창밖을 내다보고픈 생각은 별로 없고 햇볕이 싫어 커튼을 치거나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기 바쁘다.

어른의 눈에는 뻔한 풍경에 어찌 어린이들은 눈을 떼지 못할까? 설령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은 늘 창밖을 바라본다. 어린이들이 창밖을 열심히 내다보는 것은 풍경이 새롭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정서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어른에 비해서 어린이들은 정서가 풍부하다. 정서가 풍부하지 않으면 같은 꽃, 같은 강물, 같은 음악을 보고 들을 때 그저 그렇다고 느낄 뿐이다. 그러나 정서가 풍부하면 같은 사물을 대하더라도 마치 새로운 사물을 대할 때와 비슷한 감흥을 느낄 수 있다.

밤하늘을 보면서 감흥을 느낀 적이 있는가? 캄캄한 하늘에 한두 개 반짝이는 별,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지지도 않는 별, 뭐 볼 게 있나? 이런 생각에서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다. 이 말을 그저 독설이라고 치부하지는 말라. 정서적 감흥이 없으면 세월이 빨리 가는 법이다. 하루 하루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은 지루할지 몰라도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별 감흥이 없이 보낸 시간은 매우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 70, 80대 노인이 지난 6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이가 지난 6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는지 비교해 보라. 노인들은 프레스토(presto, '매우 빠르게'를 뜻하는 음악 용어)로 지나갔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린이들은 라르고(largo, '아주 느리게'를 뜻하는 음악 용어)로 지나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6년 동안 경험한 정서의 총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서가 풍부하면 늘 대하는 사물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된 자세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에 자주 접해서 익숙한 사물이나 사상도 개방된 자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본 사람이야 많았겠지만 모두가 흔히 보는 모습이라고 외면했다면 만유인력 이론은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배움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 주체성이다. 다시 말해서 배움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새로 받아들이는 정보, 진리, 사상 등이 나의

지식체제 안에, 나에게 의해서, 나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의 지식 즉 앎의 체제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만들어준 것은 완전한 나의 지식이 될 수가 없다. 누군가 나에게 열심히 무엇을 가르쳐도 내가 배우지 아니하면 나의 지식이 아닌 남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배움은 없고 가르침만 있다면 그것은 교화(教化) 즉 맹목적 주입(indoctrination)일 뿐이다.

가르침이 있어도 주체적인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내가 나의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 느끼는 지적 불안감, 지적 나태함, 그리고 주관(主觀)의 결여 때문이다. 먼저 어릴 때는 인지적 미숙과 자아의 미숙 등으로 인해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지적 불안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에 떠도는 온갖 정보와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장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불안감을 극복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권위체를 찾는 것이다. 어린이나 학생들은 대개 부모나 교사에 의존한다. 성인들의 경우 유명 인사, 또는 TV 등의 권위에 주로 의존한다. 물론 유명 인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정보들이 거의 사실이겠지만, 단지 유명 인사의 말, 매스컴에 나온 말이라는 이유로 맹종하는 것은 본인의 지적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둘째 이유는 지적 나태함이다. 지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생각,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의심이다.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끝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심을 하는 동안은 의심을 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정은 유명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라는 명제에 압축되어 있다. 장자(莊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꽃 사이를 훨훨 날아다니다가 깨어난 후 자기가 나비꿈을 꾸다가 깨어났는지 아니면 현재의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자가 꿈속에서 자기를 몰랐듯이 나비도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자기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 데카르트와 장자의 의심은 처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데카르트나 장자처럼은 아니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의심 즉 합리적인 의심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생각 또는 의심이 없다면 내 스스로의 배움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유는 주관의 결여이다. 주관이란 내 자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란 것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면 영어의 see와 watch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 다 우리말의 ‘보다’에 해당하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see는 어떤 장면이 내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된 것이다. 우연히, 내 의지와 무관하게 ‘목격’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watch는 내가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대략을 알고 ‘관찰’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차이는 ‘듣다’에 해당하는 hear와 listen에도 적용된다. see 및 hear와 비교해 볼 때 watch와 listen에는 행위자의 주체성이 깃들여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관이란 것은 이처럼 주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한다. 내가 보는 광경, 예를 들어 촛불과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개방성과 주체성이 배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면 어떻게 하면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혹시 그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몇 가지부터라도 노력해보자. 먼저 개방성과 관련해서는 앎 또는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을 100이라 치고 지금 80 정도 알고 있으니 앎의 목표를 80% 달성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앎을 이해하고 있으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앎을 벽돌 쌓기 식으로, 또는 하드웨어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나머지 20을 채우기 위해서 굳이 개방성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다.

앎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은 앎을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서는 앎의 내용 즉 의미가 불변의 요소로 벽돌처럼 저장되어 있지 않다. 의미는 기본적인 정보 즉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 간의 연결방식 즉 네트워크의 패턴에 표상되어(represented) 있다. 요소들의 연결패턴은 새로운 요소의 추가나 배제, 또는 일부 요소의 성질의 변화 등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의미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앎이지 상황이 달라지는 미래에도 이 앎이 변치 않고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개방성을 갖추는 첩경이다.

주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지적 불안감, 지적 나태함을 극복하고 주관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단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자기(self)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라는 의식을 갖는 데는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의 상대란 반드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습관 등과 이질적인 내용이 나와 상대되는 것이다. 이런 상대, 즉 나와 다른 사고방식, 행동양식, 습관 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및 그들의 삶을 자주 접할수록 지적인 자극을 받는다. 이 자극을 통해서 ‘이들은 나와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는 이러해’로 연결되어 ‘나’라는 의식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체적 안목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 활동으로 독서, 여행, 토론 등이 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란 말처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해준다. 독서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여행은 명승지를 여행하기보다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행이 좋다. 토론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이다.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관점은 어떤지 확인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개방성과 주체성을 갖춘 배우는 자세를 확립하였다면 공자학과들처럼 배우고 때로 익히는 즐거움을 누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우는 자세는 공자시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배울 내용은 전혀 다를 것이다.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꼭 특정한 내용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를 사는 대학생들이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배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는 교육 목적의 초점이 학자나 전문가보다 신사를 양성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과 같은 보편교육이 실시되기 전이므로 교육은 상류층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이던 관점에서 보면 신사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그리 어색한 것은 아니다. 교육을 보는 그의 시각이 비록 귀족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하는 신사 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신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는 당시의 교육 풍조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 당시 교육이 주로 고전을 읽고 책의 내용을 엄격히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인간이 교육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지식을 맹목적으로 전수받는 일을 경계하였다. 교육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 가두어 진다면 신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을 잘 받은 신사라면 기존의 지식과 새로 배운 내용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몽테뉴의 교육관은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적 측면, 즉 신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침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그의 견해이다. 교육 내용에 관한 그의 견해는 한마디로 시야의 확

대이다. 시야의 확대는 시간차원과 공간차원 모두에서 필요한데, 시간의 차원에서 시야의 확대를 기하자면 역사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간 차원의 시야 확대를 위해서는 여행을 권장하였다. 그 자신이 여행을 많이 하였던 몽테뉴는 여행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 귀족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도 자세히 보기를 바랐던 것이다. 몽테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농가에서 약 3년 동안 길러졌는데, 어릴 때의 이 경험이 몽테뉴로 하여금 이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몽테뉴가 시야의 확대를 시간과 공간 차원 이상으로 더 이상 세분하지는 않았지만, 여행이 자기중심적 세계관 또는 자문화중심주의(自文化中心主義)에서 탈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점을 상기하면 몽테뉴가 말하고 싶어 했던 시야의 확대는 시·공간뿐만 아니라 신분과 계급을 포함한 사회제도와 사회질서의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쉽게 말하면 선민(選民)의식에 젖어 오직 귀족의 삶의 틀 속에서 귀족의 삶만 보는 시각을 경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야의 확대는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서민이 귀족의 삶을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보다 귀족이 서민의 삶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귀족이 서민보다 더 여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분제도가 타파된 오늘날 귀족의 시야 확대를 주장한 몽테뉴의 사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신분제도는 없어졌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적, 문화적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직 “지금 여기(here and now)”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시야의 폭이 좁아진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어도 실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처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서로 자기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분열의 시대일수록 누군가 시야를 확대하여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공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소인배들이 아닌 군자들이 할 일이요, 몽테뉴가 보기에 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왜냐 하면 군자나 귀족들이 더 정신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신 르네상스를 기대하며

오늘날 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대학의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그 중의 한 측면은 대학의 커리큘럼에 관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외에 취업을 위한 공부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취

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과목에는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몰려와 수강한다. 토의 공부는 모든 대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된지 오래 되었다. 그러다보니 여러 학과에서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을 왜 배워야 하는지 회의를 가지는 학생들이 많다.

이처럼 대학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을 가르치며,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어렵다고 대학이 위기라고 외친다. 심지어 대학이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런 주장은 대학의 이념과 본질을 잘 못 헤아린 것이다. 대학의 본질은 인간의 지적인 지평을 넓히는 데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크게(大) 배우는(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큰 위기는 취업의 위기가 아니라 큰 배움(大學)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학에서의 배움이 지나치게 실용성에 치우치는 것은 몽테뉴가 주장한 시야의 확대가 아니라 시야의 축소에 가깝다. 누군가 좁은 범위를 깊게 보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바느질실이 보통은 1차원으로 해석되겠지만 크게 확대하면 2차원으로 해석되는 것(확대하면 실의 단면이 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과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태양계 한 쪽 귀퉁이에서 보면 한 개의 점에 불과할 뿐이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와각지쟁(蝸角之爭)이란 말은 달팽이와 왼쪽 뿔과 오른쪽 뿔 간의 싸움이란 말인데, 이는 당시 제(齊)나라와 위(魏)나라 간의 전쟁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달팽이 뿔 간의 다툼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보면 경영학과 기계공학이 연결될 수 있고, 문학과 의학이 연결될 수 있다. 대학생은 적어도 지적인 삶에서는 귀족사회에 입문했다고 볼 수 있다. 귀족이라면 지식을 배우는 일도 좁은 범위에서 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넓은 관점에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 시야를 자신의 전공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세상의 다른 문을 닫아서는 것이며, 온전한 세상을 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공자학파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다고 했을 때의 즐거움이란 배움으로써 넓혀진 시야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제일 먼저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르네상스가 중세의 질곡에서 인간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대학이 배움의 즐거움과 단절된 채로 실용성만을 우선하는 질곡에서 벗어나 인간 사유의 폭을 확대하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는지 기대해 본다.